

우리 동네 핫플
이 가게 어때?

깔꾸리족발보쌈국수

달서구 대명천로 240 / 문의 ☎0507-1306-5382

매력 넘치는 맛! '깔꾸리'만의 비법



‘깔꾸리족발보쌈국수’ 달서구 장기동에 있는 족발보쌈 가성비 맛집!

‘깔꾸리’란 경상도 방언으로 갈고리, 갈퀴를 뜻하는데 외관이나 가게 내부에 깔꾸리를 포인트로 눈길을 끌게 하는 족발보쌈맛집이다.

족발·보쌈·막국수 전문점으로 가게 내부도 넓어 단체 회식이라든가 단체모임으로도 제격인 곳이다.

10년 가까운 세월 동안 족발·보쌈·막국수 전문점인 ‘깔꾸리’만의 비법으로 모든 소스를 직접 만든다. 특히 마늘소스는 ‘깔꾸리족발보쌈’의 시그니처 메뉴로 남녀노소 모두가 좋아할 법한 매력 넘치는 맛이라고 한다.

보쌈에 함께 나오는 김치 역시 직접 절이고 만들어 매콤달콤하며 아삭한 식감이 일품으로 보쌈

의 맛을 더 극대화하는 맛이다.

대표메뉴로는 족발, 마늘족발, 직화불족발, 직화갈비족발, 보쌈, 마늘보쌈, 불보쌈이 있고 족발과 보쌈 세트가 있고 족발은 앞발, 뒷발 취향대로 주문이 가능하다.

재료 또한 믿고 먹을 수 있는 국내산 생족으로 여러 과일과 견과류 등 정성껏 만들어내는 깔꾸리족발만의 맛으로 손님의 마음마저 사로잡아 낸다.

매장에서 식사 시 8,000원 상당의 비빔막국수와 5,000원 상당의 얼큰한 순두부찌개를 모두 서비스로 내어준다.

매장에서 주문해 서비스로 나온 순두부찌개는 여기가 순두부찌개 전문점으로 착각할 만큼 얼큰하고 감칠맛 나는 맛에 입맛을 돋우고 족발과 곁

들이기에 충분히 잘 어울리는 메뉴이다.

또한 네이버 온라인으로 예약하면 음료수 서비스에, 포장 이용 시에도 비빔막국수가 서비스로 나가고 게다가 3,000원 할인이 되니 인심도 넉넉할 뿐 아니라 가성비까지 완벽히 갖춘 맛집이 아닐 수 없다.

‘깔꾸리족발보쌈국수’는 오랜 세월을 지켜 온 만큼 장인정신으로 정성을 가득 삶아내는 족발보쌈으로 누구에게나 입맛에 맞을 만큼 맛과 부드럽고 쫄깃한 식감에 반할 것 같다.

넓은 매장에 남녀노소 모두의 입맛에 잘 맞는 ‘깔꾸리족발보쌈국’에서 정성 넘치고 맛있고 든든한 식사를 추천해 본다.

류치환 객원기자

CHU

온리U 드라마 드라마와 입 맞CHU다

해외(유럽)드라마 전문 채널



디지털 95%

“우리의 작은 손길로 깨끗한 학교를 만들어요”

성당초, 봉사동아리(THE나눔부)의 환경캠페인 및 환경정화활동

대구성당초등학교(교장 민병조)는 5학년 봉사동아리(THE나눔부) 학생 21명이 지난 13일(목) ‘다 같이 쓸자 학교 한 바퀴’ 봉사활동을 시작했다.

‘다 같이 쓸자 학교 한 바퀴’는 우리 마을에 관심을 갖고 사랑하는 마음을 갖기 위한 우리마을 교육공동체 프로그램으로, 성당초는 지난 4월 본리동 행정복지센터와 MOU를 맺으며 우리마을 환경정화 활동에 필요한 장비를 지원받았다. 학생들은 지원받은 장비로 학교 주변의 쓰레기를 줍고 환경을 보호하자는 캠페



인 구호를 열심히 외치며 첫 봉사활동을 마무리했다.

성당초 봉사동아리인 THE나눔부는 2학기에도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한 환경 정화

활동에 참여할 예정이며, 5학년 학생은 “우리학교 주변에 생각보다 많은 쓰레기가 있었는데, 더운 날씨에 힘들기도 했지만 보람 있고 재미있었

다. 다음 기회에도 또 함께하고 싶다.”라고 말했다.

민병조 교장은 “학생들이 봉사활동을 통해 학교 및 지역사회를 아끼는 마음을 기르

고 환경 사랑을 실천하는 학생들로 자라나도록 노력하겠다.

다. 행정적 지원을 해주신 본리동에 감사를 드린다.”고 전했다. <자료제공:대구성당초등학교>

우리 지역의 소식을

푸른방송 제보에 전해주세요

푸른방송은 지역민과 함께하는 방송입니다.
<푸른방송 제보>를 통해 전하고 싶은 사건/사고/뉴스 등 우리 지역 소식을 전해주세요.



장산초, 학생 동아리 ‘해솔 밴드부’ 하룻길 공연

대구장산초등학교(교장 정후자)는 지난 21일(금) 본관 앞 조화대에서 학생 동아리인 ‘해솔 밴드부’의 하룻길 버스킹 공연을 실시했다. ‘해솔 밴드부’는 오디션을 통과한 5, 6학년 학생 7명으로 구성된 밴드부로, 매주 화요일과 금요일 이틀 동안 함께 모여 꾸준히 연습하며 실력을 쌓고 있다. 특히, 하룻길 버스킹은 ‘해솔 밴드부’가 자발적으로 진행하는 깜짝 공연으로, 매년 학생들뿐만 아니라 학부모와 교직원 모두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자료제공:대구장산초등학교>



월곡초, 1학기 스쿨챌린지 ‘교육부 장관상’ 수상

대구월곡초등학교(교장 이미라)는 환경부와 교육부가 주최하고 한국 기후·환경 네트워크가 주관하는 ‘2024년 1학기 스쿨챌린지(기후행동 1.5°C)’에서 학교부문(초등학교) 교육부장관상을 수상했다. 기후행동 1.5°C 앱을 통해 탄소중립생활을 적극적으로 실천한 학생과 학교를 선정해 시상하는 공모전으로, 학생 개별로 휴대폰을 통해 ▲탄소중립생활 실천 일기 작성, ▲탄소중립 퀴즈를 통한 지식 습득, ▲다양한 탄소중립 이벤트 참여 등을 통해 점수를 적립하는 환경 사랑 실천 운동이다.

Talk 카카오톡 <푸른방송 제보>

- 1.** 카카오톡 우측 상단에서 푸른방송 제보를 검색하세요!
- 2.** 채널 추가 후 1:1 채팅하기로 24시간 제보 가능!

이메일: gcs_jebo@gcs.co.kr
전화: 053-551-2002 / 053-572-6000



학교 소개



국가별 질문



사전 질문 준비

APEC 교육정책가와 함께하는 웰컴데이

경화여고, 교육 국제화에 앞장선다! 글로벌 리더십 강화를 위한 끝없는 노력

경화여자고등학교(교장 이성국)는 지난 21일(금) 교내 학생 47명을 대상으로 APEC 교육정책가 14명을 초빙해 ‘APEC 교육정책가와 함께하는 웰컴데이(이하 웰컴데이)’를 진행했다.

교육국제화 선도학교인 경화여고는 글로벌 리더십 신장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1, 2, 3학년이 함께 모여 진행되는 모의유엔, 학생이 직접 해외 진로 체험 프로그램을 계획한 뒤 이를 실현하여 해외 일정을 진행하는 글로벌 리더십 진로 체험이 그것이다.

‘웰컴데이’는 APEC 교육정책가 14명을 초빙해 그간의 성공적 결과물을 공유함으로써 다양한 글로벌 교육 활동의 성취를 확인하는 자리이다.

2학년 학생부회장 김수민 양은 “APEC 교육정책가를 직접 만나 소통의 시간을 가질 수 있어 영광이다. 웰컴데이를 통해 우리학교에서 진행

하는 다양한 글로벌 활동을 교외에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지난 1월 싱가포르에서 4박 5일간의 글로벌 리더십 진로 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한 3학년 정재은 학생은 “관심 분야가 비슷한 친구들을 직접 모아 팀을 만든 것, 현지 상황을 고려해 모든 일정을 계획한

것, 완성된 계획을 팀원들과 함께 발표해 최종 선발팀이 된 것 모두 잊을 수 없는 경험이다. 특히, 우리 팀의 사전 계획에 따라 체험을 하게 되니 보람과 성취감이 더 컸다.”라고 말했다.

학생들이 제작한 사전 질문지를 통해 교육 국제화에 관한 경화여고의 관심을 확인할 수 있다. 사전 질문지는 공통

질문과 동아리 연계 질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공통 질문은 ‘What specific measures are being taken to reduce educational disparities among APEC member economies?(APEC 회원국 간의 교육 격차를 줄이기 위해 어떤 구체적인 조치들이 취해지고 있습니까?)’와 같이 APEC 이 추진하는 교육 정책에 관

한 내용을 담고 있다. 동아리 연계 질문은 ‘대한민국은 현재 여러 IT 기술을 일상생활에서 접할 수 있고, 이와 관련하여 교육 방식 또한 바뀌고 있습니다. 칠레의 IT 교육에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와 같이 APEC 교육정책가의 출신국 교육 정책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자료제공:경화여자고등학교〉

화원고 ‘우리는 온누리 공동체!’ 한국어학급과 함께 다문화교육주간

화원고등학교(교장 오순옥)는 다문화 교육주간을 맞아 지난 5일(수)부터 2주 동안 다문화가정 학생 11명을 대상으로 ‘경북대 해외봉사팀을 초청 강연회’, ‘다문화 중식 식단 운영’, ‘대구대학교 진로·진학 연계 대학 탐방’, ‘도전! 다문화 골든벨’ 등의 활동을 진행했다.

‘경북대 해외봉사팀 초청 강연회’에서 한국어학급 학생들과 일반 학생들이 함께 강연을 들으며 봉사의 의미를 알고, 다양성과 평등의 의미를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도전! 다문

화 골든벨’은 다문화 관련 영상을 시청하고 퀴즈를 통해 차별하지 않는 세계 시민으로서의 자세를 배울 수 있었다.

‘대구대 진로·진학 대학탐방’을 통해 ‘다문화 학생들을 위한 진로지도’라는 주제의 특강을 듣고, 다문화 학생들이 진학하고자 하는 학과를 체험해 보는 기회를 가졌다. 또한, ‘외국인 학생들의 대학생활’이라는 주제로 간단 회를 갖고 미리 대학생활을 해 본 외국 학생들과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궁금증을 해소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행사를 통해 한국어학급 학생들을 비롯한 참가 학생들은 서로의 문화를 배우고 공유하며, 다양한 문화를 이해하고 세계시민으로서 국제적 안목을 기를 수 있었다. 〈자료제공:화원고등학교〉

Mplex 월드와이드무비채널

세상을 담다, 고품격다큐멘터리채널 **DOCU ONE**

드라마를 원한다면 **D ONE**

KMH

‘물놀이형 수경시설’ 테크노폴리스 생활체육광장

바닥분수 및 어린이 물놀이장 7월 초 개장

달성군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정화)은 유가읍 상리 971번지에 새롭게 조성된 테크노폴리스 생활체육광장 물놀이 시설을 7월 3일(수)~8월 31일(토)까지 개장할 예정이다.

테크노폴리스 생활체육광장은 연면적 13,205㎡에 중앙광장, 바닥분수, 야외무대, 통합놀이터, 다목적운동장, 산책로 등 체육활동과 축제·행사 등을 할 수 있는 복합단지로 조성됐다. 생활체육광장 물놀이장의 운영시간은 오전 11시~오후 5시까지이며, 매주 월요일은 휴장한다.

공단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현장에 안전교육을 이수한



생활체육광장 전경



어린이 물놀이장



바닥분수

안전요원을 배치하고, 수질관리를 위해 매일 물을 교체하며, 2주마다 전문기관에 의뢰해 정밀 수질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또, 물놀이장 내 편의시설로 탈의실 및 햇빛가림 몽골 텐트를 설치해 주민들의 여름

피서지의 역할을 톡톡히 할 것으로 보인다. 김정화 이사장은 “군민운동장과 생활체육광장 내 물놀이

시설의 철저한 안전관리와 수질관리로 아이들이 안전하고 즐겁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우리 동네 핫플 이 가게 어때?

마라신 다사점

달성군 다시읍 대실역남로4길 4-16(죽곡리)
문의 ☎053-582-1230

‘마라탕’ 입문자도 마니아층도 여기로...



다사죽곡 강정보 가는 길에 위치한 다사 죽곡 강정보 맛집이다.

마라탕을 무슨 맛으로 먹어?

호불호가 강한 음식일 수도 있는데 여기는 한국 입맛에 딱 맞춘 거 같다. 마라탕을 싫어하는 사람도 여기는 정기적으로 수혈해 줘야 한다고 한다. 싫어해도 여긴 꼭 한번 먹어보길 바란다.

입구부터 빨간 커튼으로 중국 분위기를 풍긴다. 마라탕 가게 내부는 보통 다 비슷하지만, 사장님께서 워낙 깔끔한 성격이라 그러신지 엄청 깨끗하게 관리되어 있다. 그래서 여기만 찾게 되는 건지~ 들어서자마자 부터 설렌다.



메뉴는 마라탕, 마라상귀, 꿩바로우, 휘귀탕이 있다. 매운 단계는 총 8단계이다.

▶마라탕을 맛있게 먹는 법: ①마라상귀엔 콩나물 마라탕엔 숙주, ②야채는 많이 특히 배추 버섯 청경채, ③푸주와 당면 피쉬볼 건두부는 필수, ④소시지는 선택 고기는 필수, ⑤라면 사리 야나 당면 사리 강력 추천

기호에 맞게 맵기를 선택하면 되고 사장님이 매운 단계 설명도 해주신다.



한곳에는 채소들이 이쁘게 세팅되어 있고, 마지막 소고기 추가는 무조건 필수!!! 넣어야 한다. 그리고 밥을 추가하면 강황 가루가 입혀진 노랑 밥이 나온다.

진~짜 마라탕 먹고 싶을 때 ‘마라신’ 다사점까지 가서 한 그릇 먹고 나면 너무 만족스럽다. 마라탕 입문자도 마니아층도 눈이 휘둥그레질 수밖에 없는 곳이다.

꿩바로우도 금방 튀겨 나와서 가위로 쓱쓱 잘라서 한입 먹으면 “우와~” 눈이 튀어나올지도 모른다.

후식으로 아이스크림 종류별로 입구에 놓여 있어서 한 그릇에 하나씩 먹으면 된다고 한다.

‘마라신’ 다사점은 주차장이 따로 없고 가게 앞도로나 뒤쪽 골목에 주차하면 되며, 영업시간은 오전 11시~오후 10시까지이며, 매주 화요일 휴무이다.

강정보 나들이 가면서 들려도 좋고 마라탕 당길 때도 다사마라신은 꼭 한번 찾아가길 바란다.

장미경 객원기자